

高承濟博士의 經濟學研究過程評價

姜 命 圭*

1. 머리말

高承濟博士가 經濟學分野의 處女作으로 『經濟學入門』을 出刊한 것은 1948年 7月이므로 弱冠 20代다 갓넌은 31歲때의 일이다. 高博士는 이때부터 30年間의 學究生活를 통하여 都合 12卷의 著作을 엮어냈는데 이 중에는 譯書 2卷과 英文 1卷, 日文 1卷의 著書가 包含되어 있다. 社會科學中에서도 經濟學처럼 生硬하기 그지없는 分野에서 이처럼 龐大한 量의 業績을 生産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學問의 歷程에 들어선 이래 華甲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외길만을 固守하면서 刻苦의 精進을 거듭해 온 結實이라 아니할 수 없다.

高博士가 30年에 걸친 歲月의 學究生活를 통해서 펴내온 12卷의 著作은 3,700條面에 達하는 冊子이며 原稿紙로는 總집이 2萬2千餘枚가 넘는데, 그러면 이처럼 廣大한 筆田(筆田)을 갈아 오면서 高博士가 平生에 構築해낸 學問의 世界는 都大體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 片鱗이나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目的이다.

여기에 參考가 될 것이므로 우선 高博士의 著作目錄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經濟學入門』(乙酉文化社) 1948
- ② 베야드著 『政治와 經濟』(陽文社) 1954
- ③ 『現代經濟論』(世光出版社) 1954
- ④ R.V. 클레멘스著 『新經濟學』(民衆書館) 1954
- ⑤ 『韓國經濟論』(新明文化社) 1956
- ⑥ 『近世韓國產業史研究』(大東文化社) 1959
- ⑦ STAGE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S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OXFORD UNIVERSITY) 1966
- ⑧ 『韓國金融史研究』(一潮閣) 1970
- ⑨ 『植民地金融政策の史的分析』(御茶の水書房) 1972
- ⑩ 『韓國移民史研究』(章文閣) 1973
- ⑪ 『韓國經營史研究』(韓國能率協會) 1975
- ⑫ 『韓國村落社會史研究』(一志社) 1977

著作目錄의 順序에 따라 研究內容을 概觀하여 볼 때 우리는 高博士의 學問世界가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段階를 거쳐서 進展되어 있음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첫째는 理論的 研究段階로서 著作目錄 ①~④가 이에 該當되며(그의 年歲 30代)

둘째는 現實과 歷史의 構造的 分析段階로서 著作目錄 ⑤~⑦이 이에 該當되나(그의 年歲 40代)

세째는 歷史的 研究段階로서 著作目錄 ⑧~⑫이 이에 該當된다(그의 年歲 50代以後)

我田引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와같은 高博士의 研究段階區分에서 자못 興味있는 두가지의 事實을 指摘할 수가 있다. 1945년에 延大敎授就任以後 研究成果를 集約하기 시작한 1948년부터 各段階間에 뚜렷한 年齡帶別의 發展이 確然하다는 點이 그 하나이며 둘째로는 첫 段階의 研究課程속에 이미 第2段階의 問題意識과 方向感覺이 摸索되어 있고 第2段階에서는 第3段階의 研究視角이 어김없이 準備되어 있어 우리는 한 學者의 그칠 줄 모르는 探求心과 主題에 대한 執着力을 여기서 實感할 수 있다

* 서울大 社會大 敎授

는 것이다.

그러면 以下에서 各 研究段階別의 主題와 實績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2. 理論의 研究段階(1948~1955年)

野心 많은 30대에 高博士가 經濟學의 理論의 研究에 沒頭하여 두卷의 著書와 두卷의 譯書를 出刊한 것은 解放과 6.25動亂을 거치는 混亂期였다.

處女作인 『經濟學入門』(1948) 序文에서 高博士는 「資本主義의 發生, 發展 그리고 그 現段階의 諸特殊性을 統一的으로 理論적으로 說明한다는 所謂 體系的 分析에다 重點을 두면서……하나의 새로운 經濟學體系를 그려 보려는 意圖에서」(p. 3) 이 冊을 執筆하는 것이며 題號가 入門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敘述의 平易化가 特徵이기 때문이 아니라 問題를 基本的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宣言하면서 經濟學을 原理面에서 새로이 體系化해 보고자 하는 뜻있는 野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教材나 講義의 所産以上の 創作을 圖謀하고자 하는 意慾으로서 始初부터 問題를 根本의인에서 提起하고 이를 究明해 나가는 態度라 하겠으며 그 後에 展開된 高博士의 모든 著作活動에 있어서 一貫된 特徵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經濟學入門』을 重視하는 까닭은 이 處女作이 高博士의 學問世界的 性格을 몇가지 側面에서 豫示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그의 經濟學觀이 뚜렷이 明示되어 있는 點이다. 그는 「經濟學 自體가 歷史적으로 成立한 歷史的 社會科學인 만큼 그것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經濟現象의 歷史的 發展의 諸法則을 究明하는데에 標的을 두어야」(p. 3) 된다는 信念에서 出發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는 經濟現象의 歷史的 所産으로서의 資本主義體制의 發生과 그의 生産 및 發展法則을 論한 다음 現代資本主義의 諸問題를 分析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政治經濟學的 接近方法의 代表的인 경우라 하겠다.

그의 政治經濟學體系 안에는 正統經濟學의 分析方法이 補完되어 있어 그야말로 「새로운 經濟學體系」를 確立해 보고자 했던 意圖가 如實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高博士의 學問研究의 方向이 設定되어 있다는 點이다. 그에게는 「언제나 變動하여 마지 않는 新事態」(上同)에 直面해 있기 때문에 抽象的인 理論만의 羅列은 無力하고 經濟現實의 움직임에 대한 具體的인 實證作業이 恒時 要求된다. 資本主義經濟의 現代의 性格을 分析한 第5章에서는 第4章, 까지의 理論模型의 適用을 통하여 여러가지 實證的 統計資料를 動員하고 그 理論의 妥當性을 檢證하는 手續을 밟고 있다. 이와같은 理論과 實證, 抽象性和 具體性的 結合에 의한 探求慾은 그로 하여금 後半期에 經濟史의 研究에 邁進케 하는 契機가 되는데 이것은 分析對象으로서의 經濟現實이 歷史的 所産일 뿐더러 「經濟學 自體가 歷史적으로 成立한 歷史的 社會科學」인 만큼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當然한 方向設定이었던 것이다.

處女作인 『經濟學入門』의 性格에 관한 以上과 같은 展望에서 볼 때 그의 理論的 研究段階의 두번째 作品인 譯書 BEARD의 『政治와 經濟』(1954)는 高博士의 經濟思想을 代辯해 주는 指標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高博士 自身이 「譯者는 翻譯하는 하나의 技術工에 지나지 않는다」(譯者序文)고 表現함으로써 무엇보다 譯者가 지나야 될 客觀性和 謙虛함을 몸소 보이고 있지만 譯書의 選擇 自體가 譯者의 主觀에 基因된다는 뜻에서 이 책은 「하나의 經濟學徒로서 政治學과 經濟學이 어떻게 歷史적으로 關聯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上同) 高博士의 社會科學思想의 發露라 해도 過言이 아닐것 같다.

高博士는 이 段階에 또 하나의 譯書 CLEMENCE의 『新經濟學』(1954)을 내 놓았다. 「二次大戰 前後의 10年間 海外經濟學界의 動向을 모르는 답답한 生活」(p. iii)을 바꾸기 위하여 KEYNES의 巨視經濟學을 要領있게 解說한 教材를 번역한 것이다. 高博士는 어실근 教材의 著述보다는 着實한 翻譯을 통한 新經濟學의 移植의 길을 擇한 것이다. 이때를 契機로 우리나라 經濟學界에 이른바 케인즈經濟學의 活潑한 導入이 開始되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같은 해(1954年)에 出版된 高博士의 『現代經濟論』은 그가 解放後 10年동안 發表해 온 論文들을 第1編 世界經濟의 諸問題, 第2編 韓國經濟의 諸問題, 第3編 經濟學의 諸問題란 세 分野로 分類하여 엮

어년 것이며 高博士의 經濟思想을 窺知하는데 또 하나의 指標가 되고 있다.

그는 「다만 한가지 憂慮는 經濟學이 經濟生活에서 멀리 遊離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經濟學의 너무나 빠른 發達은 經濟學 그 自體의 經濟現實에서의 遊離化를 미어내고 말았다. 따라서 經濟生活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는 만큼 經濟學이야말로 一般사람의 一般學問이어야 할터인데 감할 수 없는 動向은 經濟學은 發達할수록 一般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기만 한다. 이러서는 안되겠다. 經濟學을 하루마루 참다운 主人公인 一般사람들의 손에 돌려 보내야 하겠다」(p. 2)는 使命感에서 붓을 들게한 論文들임을 強調하고 있다. 日本式 亞流經濟學의 段階를 脫皮하지 못한채 케인즈經濟學 또는 SAMUELSON經濟學으로의 飛躍이 8.15에서 6.25에 이르는 韓國經濟의 現實을 理解하고 說明하는데 當時의 狀況으로서 果然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는가를 생각할 때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이와 같은 經濟學上의 問題意識은 오늘날에도 一般化 시킬 수 있는 眞理를 內包하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이 著書는 高博士의 經濟學이 理論의 研究段階에서 第2段階인 現實과 歷史의 構造的 研究段階로 넘어가는 橋樑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스미스에서 말라스, 밀에 이르는 古典派 經濟學者들을 回顧하고 케인즈, 피구 및 現代經濟學의 性格과 方向을 探索하고 있는 第3編에서 高博士는 「經濟學의 使命은 光明을 가져 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果實을 가져 오는데」(p. 303) 있음을 主張하는 피구의 厚生經濟學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 케인즈의 偏向의 傾倒를 警戒하는 한편 既成理論에 얽매이지 않고 現實의 問題를 直視하는 케인즈의 勇氣를 禮讚한다. 그리고 經濟學은 그 研究對象인 經濟現實의 問題解決에 結實을 가져다 주어야 하며 이때의 經濟現實은 時間性속에 存在하는 까닭에 그 歷史의 意味을 究明하여야 된다는 點에서 高博士는 「經濟理論의 歷史性」(p. 294)을 強調한다. 그에게 있어서 韓國經濟의 歷史的 現實은 西歐의 意味의 資本主義化의 自力的 達成을 阻止 當하지 않을 수 없었던 內外要因의 分析에 焦點을 맞추어야 바르소 認識이 可能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冊의 第1編과 第2編에서는 특히 2次大戰直後の 世界經濟와 韓國經濟의 現實의 當面問題들이 實證의으로 分析되고 있는데 이 時期(1945~54年)의 經濟動向에 관한 무거있는 資料를 提供해주고 있다. 가령 6.25前夜인 1949年의 美國經濟에 관한 考察에서 工業生産의 月別推移의 資料를 分析해가며 不況局面의 可能性을 打診한 點이란든가(pp. 38~42), 『戰後 日本貿易의 動向』에 관한 論文에서는 특히 綿製品의 輸出貿易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온 日本工業의 成長過程이 이미 1920年代부터 世界 綿製品市場에서 英國의 強敵으로 登場해 온 歷史的 視角에서 이를 展開함으로써 2次大戰後에도 徹底한 鐵鋼輸出까지 敢行하면서 歐美諸國에 대한 威脅의 競爭者로 再登場되고 있는 事實을 檢證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맞다고 볼 것인가, 가없다고 볼 것인가」(p. 65)고 묻고 있는 點 등은 當時의 國際經濟의 潮流에 관한 價値있는 知識을 傳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第2編의 『韓國經濟의 諸問題』에 관한 論文들에서도 解放과 南北分斷, 6.25南侵과 休戰에 이르는 期間의 韓國經濟의 構造的 體質을 歷史的이며 國際的인 視角에서 이를 立體的으로 解剖함으로써 이 時期의 韓國經濟의 참 모습과 그 未來像을 透視함에 必須不可缺의 業績을 남겨 놓은 것이다. 短篇의인 論文들이긴 해도 全體를 貫流하는 歷歷한 脈絡은 첫째 韓國經濟의 再生産過程이 後進의인 수 밖에 없게된 歷史的構造가 무엇인가를 追求하여 韓國經濟가 自力的으로 近代化를 이루지 못한 여러가지 原因을 찾아 내는데 있어서도 視野를 너무 偏狹하게 經濟史의인 너무나 經濟史의인 題目에만 集中하지 말고 政治史의인 分野에도 學問的인 關心을 너그럽게 分布시켜야 할 것」(p. 125)을 強調한 方法論의 立場과, 둘째는 이와같은 韓國經濟의 體質은 世界經濟와의 關聯속에 把握하여야 비로서 그 實力을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고 또 그 進路를 開拓할 수 있다고 본 觀點이라 하겠다. 특히 後者の 觀點은 當時로서는 極히 드물게도 韓國經濟를 國際市場과의 關聯下에서 그 體質把握을 試圖한 것인데 高博士는 「第2部門(工業部門)의 自立化에 있어서 가장 決定的인 條件은 衣料生産 더구나 綿紡績工業의 自立化條件何如」(p. 145)일 것인데 「이처럼 보아 올 때 綿紡績工業을 中心으로 하여 第二部門生産力을 自力的으로 發展시키는 潛在의 能力은 그다지 劣等한 것이 아님을 自信할 수 있다」(p. 147)고 診斷함으로써 韓國經濟에서 纖維工業이 차지하는 國際競爭上의 潛在的인 比較優位를 일찍이 豫見하고 纖維工

業의 生産力을 沮害하는 要因을 除去하는 方向의 貿易政策과 그 輸出振興策을 具體的으로 提示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經濟를 自立的으로 復興시키는데 있어서 對外貿易은……國民經濟의 外邊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基軸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서는 剩餘工業製品의 販路와 超過利潤의 源泉을 찾아서 海外市場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復興을 위해서 그리고 生産體系의 確立을 위해서 外國貿易을 絶對로 必要로 하는 것이다」(pp. 180~81)라고 한 主張은 貿易規模가 微微하기 짝이 없던 50年代初에 韓國經濟構造上의 輸出의 重要性和 그 主導産業(纖維工業)을 摘出해 낸 것인데 이는 分明히 高博士의 卓見이었으며 20年後에 韓國經濟의 現實에서 展開된 進路를 摸索하여, 마지않던 그의 學問的 洞察力을 論文 구석 구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3. 現實과 歷史의 構造的 分析段階(1956~1966)

高博士의 著作順位에 따라서 볼 때 앞에 紹介한 『現代經濟論』은 理論的 研究段階로부터 다음 段階에서의 進展을 위한 前奏曲이었다. 그는 40대에 접어 들면서 韓國經濟의 現實과 歷史의 構造를 더 한층 體系적으로 深層에까지 파들어 가는 作業에 專念했다. 어떻게 보면 이 時期의 業績이야말로 高博士의 學問生活의 絶頂期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韓國經濟論』(1956)의 劈頭에서부터 「우리 韓國에 있어서 經濟學을 研究하는 意義가 어디에 있는가」(p. 1)고 自問하여 經濟學의 理論體系를 發展시키고 人類의 福祉를 增進시킨다는 汎地球的인 目的을 達成하는 길은 韓國에서 貧困을 물리치고 韓國經濟를 높은 水準으로 發展시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韓國에 있어서 經濟學 研究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貴重な 課題는 韓國經濟의 實態를 解明하고 그 發展의 方途를 提示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p. 1)고 主張한다. 여기서는 그가 韓國經濟를 解明·分析하는 基本的立場은 우선 「우리의 眼前에 錯雜하게 움직이고 있는 韓國經濟의 基底에는 歷史的인 뿌리가 감추어져」(p. 2) 있으므로 이와 같은 「韓國經濟의 體軀안에 아직도 潛伏하고 있는 舊來的인 要素를 解明해야만 비로소 韓國經濟가 가지고 있는 體貌와 性格上의 特殊性을 찾아낼 수」(p. 2)이라는 點과 「韓國經濟의 性格과 力量을 解明·測定하는 補助手段」으로서 (p. 2) 歐美 및 東洋諸國의 實例와 比較考察하는 點에 있다.

그리하여 『韓國經濟論』은 韓國産業의 構造에 관한 一般의 考察에서 시작하여 農業, 漁業, 鑛業, 工業, 商業과 貿易, 金融, 財政 그리고 國民所得에 이르기까지 그 基本構造를 分析해 내고 있는데 이는 1950年代 前半期까지의 韓國經濟의 構造의 特質을 理解하는데 貴重な 文獻이 되었으며 여기에 動員된 龐大한 資料와 韓國經濟構造를 生産構造와 流通構造에서 뿐 아니라 經營構造에 이르기까지 파헤치고 있다는 點에서도 그 價値는 높이 評價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高博士은 韓國經濟의 現實에 관한 이와 같은 體系의인 研究를 통하여 『韓國經濟의 基本性格의 解明은 그 歷史의 性格의 追求에서 現段階의 經濟樣相을 解明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는 信念을 얻게』(『近世韓國産業史研究』 p. 1)되었고 이와 같은 「韓國經濟의 歷史의 性格을 究明하는 課題는 韓國의 舊來産業이 自立的으로 近代産業으로 發達될 수 없었던 歷史의 原因을 探索하여야만 비로소 解明될 수 있다」(『近世韓國産業史研究』 p. 1)고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은 動機에서 著述된 『近世韓國産業史研究』(1959)는 高博士의 研究業績中 그야말로 珠玉篇이라 하리만치 心血이 傾注된 것으로서 그가 이 業績으로 서울大學校 經濟學博士 第1號의 榮譽를 차지하게 된 것은 너무나 當然한 歸結이었다.

李朝綿業史, 李朝鹽業史, 李朝鑛業史研究의 세 篇으로 構成되어 있는 『近世韓國産業史研究』는 「韓國의 舊來産業이 近代의 發展을 이룰 수 없었던 諸般原因에 관한 歷史的인 認識만이 韓國經濟의 近代化를 可能케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p. 2) 確信하게 되었던 그가 이처럼 自生的으로 近代의 發展을 이루지 못하게 된 舊來産業의 産業技術 및 經營組織上의 「內生的인 原因」과 舊來産業을 둘러싸고 있던 李朝國家의 基本性格, 政策體系, 社會的인 性格등의 「外生的인 原因」을 交叉的으로 分析해 넘으로써 李朝經濟史의 體系化에 獨步的인 境地를 開拓하게 된 事實은 學界에서 公認되고 있는 바와 같다.

高博士의 이와 같은 産業史的인 接近에 의한 李朝經濟史의 體系化研究는 다음의 몇가지 側面에서 學界

에 미친 바 影響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歐美學界에서 東洋諸國의 社會經濟史를 理解하는 焦點은 西歐資本主義가 東洋諸國에 傳播되는 過程에서 逢着하게 된 障害要因을 摘出함에 그치는 것이 一般인데 高博士에 의하여 이와 같은 近代化에의 障害要因을 生成시킨 背景으로서의 李朝社會의 經濟的 體質이 立體的으로 解剖되었다는 點이다. 둘째는 高博士는 產業史의 次元에서 그것도 各產業의 生成·進展·沒落過程을 生産·流通 및 技術·經營組織上의 律動에서 뿐만 아니라 그 經營環境인 國家政策과 國際貿易의 變遷過程과의 相關關係에 이르기까지 具體적으로 考察했다는 點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高博士의 產業史研究에 의하여 새로이 實證된 李朝經濟史의 特徵은 아래와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李朝綿業史研究에서는 李朝初에 對日輸出이 可能할 程度로 東洋屈指의 綿業生産國이던 것이 綿布를 流通手段으로 삼는 通貨政策(Cotton-as-a-currency policy)이 實施되므로 말미암아 綿布는 貢租와 軍役布徵收의 對象이 되었을 뿐 아니라 對外支拂의 手段으로도 利用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그레샴法則이 綿業市場에 作用하게 되어 綿布의 品質惡化와 生産意慾의 低下가 促進되었고 따라서 綿業의 技術의·經營的分化나 棉作農業의 商品生産化에 의한 商業資本蓄積의 可能性이 封鎖되었기 때문에 특히 壬辰亂以後에는 加速된 衰退過程을 치닫게 되었다는 史實이 確認되었다. 다음에 李朝鹽業史의 研究에서는 財政制度에 基因된 過重한 鹽稅賦課와 經營의 零細性으로 因하여 生産力이 枯渴되어 갔고 그 流通過程에서 마저 中國이나 日本의 경우와 달리 商業資本의 發育이 阻止當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生産力이 衰退되어 급기야는 外國鹽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된 經路가 實證되었다. 끝으로 李朝鑛業史의 研究에 의하여 高博士는 對中國의 朝貢免除手段으로 採擇된 鑛業開發消極化 政策의 骨格에다 李朝特有의 綿布通貨政策과 過重한 徵稅, 經營組織으로서의 德大制度의 資本의 零細性, 生産技術의 低位性이 相乘作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生産力 上昇의 誘因을 찾을 수 없던 衰退過程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産業史의 接近方法에 의한 李朝經濟體質의 衰退化過程에 관한 이와 같은 診斷은 이른바 殖民地史觀의 克服을 課題로 내 세우고 있는 近者의 國史學界의 動向과는 對照적인 結論을 導出하고 있는 셈인데 高博士의 研究는 史觀이나 理念의 問題가 아니라 客觀的 史實의 證明이며 貴族의 文化史나 英雄의 政治史가 아니라 民衆史의 經濟生活史이고 國粹적인 歷史敘述이 아니라 國際적인 比較史에 立脚한 分析이기 때문에 좀처럼 反證하기 어려운 強點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高博士가 1961년에 渡美하여 數個年の 研鑽끝에 發表한 “STAGE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SIA(1966)”는 그의 李朝經濟史 특히 綿業史의 研究成果를 日本, 中國, 印度 등 東洋諸國의 그것과 比較함으로써 우리의 社會經濟史의 座標을 世界史의 發展過程속에 定立시켜 놓은 業績이다. 그는 綿業史를 中心으로 하는 所謂 STAPLE APPROACH의 方法論을 驅使하여 經濟의 近代化의 變革에 가장 重要視 된다고 보는 ENTREPRENEURSHIP과 工業勞動이라는 두가지 生産要素의 供給條件如何의 視座에서 東洋 4 個國의 比較經濟史 乃至 國際經濟史를 展開하고 있는데 高博士는 이 두가지 生産要素의 純經濟的 作用만 分析한 것이 아니라 門戶開放 以前段階의 各國에서 이들 要素의 形成過程上に 나타난 促進의 또는 沮止의 諸條件을 政治, 社會 文化的인 背景에까지 探索하여 「韓國, 中國, 印度, 日本의 네 나라에서 工業發展의 速度와 方向과 範圍를 變化시킨 이른바 아시아의 諸要因」(p. 12)을 究明해 냈던 것이다.

특히 韓·中·日 極東 3 國의 19世紀에 있어서의 門戶開放過程上に 나타난 이른바 開港의 動機·時差 및 그以後의 發展의 格差를 낳게 한 原因을 高博士는 이들 各國의 前近代社會의 經濟構造의 性格差에서 찾아냄으로써 李朝經濟史의 客觀的 透視를 可能하게 했으며 貨幣經濟 및 商業資本의 蓄積水準과 地主經濟의 展開度如何한 尺度에서 韓國의 前近代社會를 國際的 視野에서 比較史的인 省察을 가할 수 있는 眼目을 提供한 것이다. 高博士의 이 業績에 대한 美·日·印 등에서의 評價는 韓國學者에 의한 이 分野의 研究로는 最初의 關心을 集中시켰던 것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4. 歷史的 研究段階(1967~1977)

이제 高博士은 50대에 접어들면서 學問的 關心의 對象을 李朝時代에서 日帝時代의 諸問題로, 構造的인 問題에서 보다 歷史的인 다시 말하면 어떤 意味에서 人間史的인 問題로 進展시켜 나가는 새로운 段階에 到達한다.

그가 이 段階에 連續的으로 發表해온 『韓國金融史研究』(1970), 『植民地金融政策의 史的 分析』(1972), 『韓國移民史研究』(1973), 『韓國經營史研究』(1975) 그리고 『韓國村落社會史研究』(1977)를 一貫하여 펴 놓고 있는 論理는 各時代의 經濟生活史에 흐르고 있는 갖가지 喜悲劇의 人間史圖 드라마라 表現해도 좋을 것이다.

經濟的인 制度와 施策과 環境 그리고 資力이나 組織의 表象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人間像이 들어나고 이들 人間의 個人的·集團的 行動樣式의 質量이 한 나라의 歷史의 흐름을 構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高博士의 人間史的인 接近方法은 결코 歷史의 表面舞臺에 華麗하게 登場하고 있는 政治史的인 人物 史가 아니라 李朝末以來 이 땅에서 혹은 京鄕各地의 金融業의 設立·運營者로서, 혹은 各種 近代企業의 創業·經營者로서 活動해 온 經濟人階層과 農民·貧民層出身으로서 海外各處에 流浪의 길을 떠났던 移民階層의 生活史이며 活動史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던 前近代의 社會文化 構造와 日帝植民地政策이라는 「二重의 桎梏」에 시달리면서 民族史의 屈曲을 어떻게 形成하게 되었는가를 밝혀 넘으로써 韓國近代 社會經濟史의 새로운 斷面을 開拓해 내게 된 것이다.

韓國의 植民地時代史를 바로 이 角度에서 解明한 것이 高博士의 『韓國金融史研究』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著書에서 日本의 韓國에 대한 實質的 支配開始는 通俗的인 理解와는 달리 이미 1878년에 釜山支店을 設置했고 1905년에는 事實上 中央銀行의 機能을 掌握하게 된 日本 第一銀行을 中心으로 展開된 日本型 貨幣金融經濟의 強權의 侵透過程에서 究明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로 부터 立論하여 總督政治以後에 있어서도 中央銀行이란 名分을 내세운 朝鮮銀行을 爲始 韓工銀行, 朝鮮殖產銀行 등의 特殊金融機關을 일찍부터 大陸膨脹政策의 先鋒으로 삼아 非韓國化의 方向으로 惡用하여 온 形迹을 白日下에 들추어 냈을 뿐 아니라, 1899년에 大韓天一銀行의 設立以後 漢城銀行, 韓一銀行, 朝鮮商業銀行과 湖西銀行, 大邱銀行, 海東銀行, 三南銀行, 慶一銀行, 湖南銀行 등의 民族系(地方)銀行들이 걸어온 興亡盛衰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經濟侵略初期에 少數의 韓國 官人層, 地主層, 商人層의 富力을 銀行業에 끌어들이 日本支配體制의 協力分子로 利用하다가 1920년대부터는 이들 民族系銀行의 主導權을 巧妙하고도 惡辣한 手法으로 日人商人層에게 歸屬시켜 가는 悲劇的 過程에서 이들 銀行에 대한 所有權과 運營權이 關係人物들 사이에 어떻게 移動되에 갔고 여기에는 어떠한 人間關係가 伏在되었던가를 追跡하는 한편, 同一한 民族系銀行이었다 하더라도 가령 大地主·貴族階層과 商人·中産層中 어느 勢力이 支配하느냐에 따라 國民의 市場과 國民의 經濟에 발판을 가진 眞正한 民族系 近代銀行으로서의 實의 有無에 差異가 있었던 點까지 確認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 發行된 『植民地金融政策의 史的 分析』(1972)은 『韓國金融史研究』의 日語抄譯이다.

이 段階의 두번째 著作인 『韓國移民史研究』(1973)는 亦是 이 分野에 관한 우리나라 最初의 業績으로서 高博士은 李朝國家가 鎖國主義를 廢棄하기 以前부터 이미 國力衰微의 象徵으로서 間島, 滿洲 및 沿海州에 흘러 나가기 시작한 移民의 流出이 그 후 마치 日本支配體制=日本民族의 移動에 대한 反射作用처럼 滿洲, 하와이 그리고 日本等地로 激増해 나간 過程을 昭詳히 밝혀 놓았는데 여기에는 이들 移民들의 定着化過程에서 나타났던 社會의 背景, 意識構造와 그들의 經濟生活狀態가 鮮明히 分析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日本軍國主義의 膨脹政策의 餘波로 韓國에 流入된 日本人移民과 中國華僑移民의 問題까지도 그 發端과 推進過程 그리고 그들의 生活活動을 詳述하고 있다.

이 移民史研究의 集大成을 통하여 「눈물 어린 民族의 悲哀」(p. 4)의 歷史를 痛感하게 된 高博士은 「海外移民들이……衣食 生活과 子女教育費를 除한 殘餘收入을 모조리 獨立運動資金으로 提供하기에 餘念이 없었던 生活姿勢를 確認하여 갈수록 韓國民族의 優秀性에 관하여……自負心을 느껴본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p. 5) 이들의 祖國回歸型의 精神史의 構造를 固守하는 祖國愛야말로 民族運動과 獨

立運動의 源動力이 되어 왔음을 確認하고 「職業的 獨立運動家들의 榮光을 操作하기 위하여」(p. 5) 移民史 叙述에서 主客이 轉到되는 歷史的 虛實을 排擊하였던 것이다.

高博士의 「韓國經營史研究」는 앞에서 본 두가지 研究에서 持續해 온 「舊韓末과 日帝時代에 관한 社會經濟史의 底邊을 解明하는데」(p. 4) 있어서, 殖民地 治下의 資本主義機構안에서 韓國인들이 發揮할 수 있었던 唯一하고도 代表的인 「社會勢力」이 近代의 會社企業을 設立·運營했던 民族企業家層이라는 基本視座를 設定한 高博士는 電氣業, 織物業을 爲始한 24個 事業部門의 會社企業들을 이른바 ENTREPR ENEURIAL HISTORY의 方法論에 立脚하여 分析해 있다. 各企業들의 創業主와 經營層의 社會的背景, 系譜를 비롯하여 會社設立과 運營의 實態를, 우리나라의 傳統的 價值觀이나 社會文化的環境뿐만 아니라 殖民地下에서 近代의 經濟構造라는 特殊條件과도 結付시켜 이를 觀照함으로써 企業經營의 成功事例은 勿論이요 失敗의 事例까지도 提示하는 同時에 人間으로서의 企業家들의 밝은 面과 어두운 面을 共に 다루고 있기 때문에 「殖民地時代를 살아 온 韓國인이었기 때문에 부딪혔던 人間苦」(p. 4)가 赤裸裸하게 그려 짐으로써 「피가 흐르는 人間像을 定立」(p. 4)하게 된 것이다.

이 段階의 研究作業을 통하여 高博士는 자칫하면 感情的인 政治史 乃至는 事件史 爲主로 흐르기 쉬운 우리나라 歷史展開에 있어서 漏보아 주어야 하는 階層의 人間像을 제 なりに 定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經濟活動階層은 우리社會가 近代化됨에 따라서 그 歷史的 比重이 더욱 커지는 存在 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社會科學界가 現代化됨에 따라 더욱 더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社會勢力인 것이다.

1977년에 發刊된 『韓國村落社會史研究』에 의해서도 이미 立證되었을 뿐 아니라 「韓國의 5五千年史를 村落史의 側面에서 整理하는 일을 끝내고 보니 著者는 이미 61回の 誕生日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感慨가 없을 수 없다.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韓國賤民史를 研究하는 일로 歲月을 보내고 學問의 旅路를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同書, pp. 3~4)라고 한 構想이나 뒤이어 『韓國女性史』를 探究하고자 하는 平素의 關心表明으로 미루어서도 단순한 實感以上の 것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人間生活의 社會構成體의 基本單位인 村落을 核으로 하여 展開되어 온 民族史叙述의 方法에 의해서 上古時代로부터 統一新羅, 高麗 및 李氏王朝를 거쳐 殖民地時代와 現代의 工業化·都市化過程에 이르기까지 各時代마다의 政治支配體制 밑에서 村落社會가 거쳐야 했던 變容과 그 對應關係를 分析한 『韓國村落社會史研究』는 이 또한 獨創的인 歷史叙述의 着想으로서, 政治體制와 法律制度의 外觀을 벗겨냈을 때 最終의으로 남게 되는 社會構成體라 할 수 있는 村落의 構造를 動態의으로 解剖함으로써 이와같은 人間生活의 原基形態속에서 生動하고 있는 人間 그 自體의 참 모습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高博士의 學究로 이미 構想의 段階를 벗어난 韓國賤民史와 韓國女性史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韓國의 人間像에 대한 探究는 지속될 것으로 자못 期待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맺는 말

以上에서 우리는 30年間에 걸친 高博士의 研究業績을 年代順에 따라 走馬看山格으로 概觀하여 보았다. 그의 多方面에 걸쳐 파헤친 甚大한 著作에 대한 우리의 理解에 큰 錯誤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華甲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學生을 통하여 一貫된 問題意識을 追求하며 新天地를 開拓하고 있는 高博士의 學究熱이 오래도록 繼續되어 後學의 龜鑑이 되어 질 것을 祝願하며 慶儀에代하고저 한다.

1977年 9月

카나다 오타와 客舍에서